

## 2022 동시대 미술 기획전 <남겨진 것들>

### 김영동 | 미술평론가

김영세(b.1952)의 「무용지용(無用之用)」- 재료에 혼입돼온 생의 리얼리티

김영세는 평소 대형 캔버스에 스케일 큰 제스처로 추상적 이미지를 잘 그리는 화가로 알고 있다. 특히 빠른 붓질에 반응한 물감의 흔적을 남긴 단색조의 화면이 매력적이었던 기억이 있다. 유동성 성질의 물감을 즐겨 사용하는 탓에 우연성이 개입한 효과가 더해진 비구상적 이미지의 형상이 감각적인 색채와 함께 매우 세련되고 지적인 인상을 주는 화면 구성으로 주목받는다. 평면 회화 분야에서 감각적인 추상표현주의적 페인팅을 오랫동안 탐구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좀 색다른 스타일의 작품을 내놓아 큰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다.

캔버스 대신 종이 위에 아크릭 물감을 채택하여 전면 균질적인(all over) 색면회화를 추구한 것 같아서 첫인상에 색면추상회화(color field painting) 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화면 아래 굵고 찢긴 흔적들이 드러나며 마치 노역에 시달린 세월 혹은 세파에 노출되어 입은 상처들을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알아채게 되었다. 바로 말하자면 흰 페지 위에 그린 그림, 아니, 채색 화면인 셈이다. 마침 작가가 쓴 출품의 변이 있어서 보았더니 “골판지의 골판지에 의한 골판지를 위한 작품에 집중”하였다고 밝힌다.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작품명은 아마도 바탕 매체를 캔버스가 아닌 사용 후 버려지는 박스용 종이를 재료로 재 사용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 같다. 용도를 다한 폐지인 골판지를 펼쳐 그 위를 전면 균질적인 방법으로 ‘올오버 페인팅’

한 것이다. 강렬한 발색과 미니멀한 채색 방법 외에는 화가의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순수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바탕의 재질에 남은 희미한 자취들이 마치 과거에 겪은 사건들처럼, 사물로서 많은 은유를 품고 있다.

이러테면 상자 표면에서 뜯겨나간 자리에 드러난 골판지 특유의 무늬는 아물지 않은 큰 상처처럼 느껴진다. 여러 가지 형태로 눌린 자국들은 작은 생채기 같이 물감 아래서 그 흔적을 다 감추지 못한 채 사연들을 드러낸다. 애초 상자를 접었던 자리에 생겨난 골은 화면을 가로 세로로 구획 짓는 형식으로 기하학적 분할 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비대상 추상 양식 특유의 형식과 방법에 채택한 이질적인 매체의 효과가 울림 있는 메시지가 되어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 현실과 별개인 순수한 미적 지각과 모더니즘의 조형적인 방법적 논리로 구현되던 추상미술의 형식을 삶의 생생한 리얼리티가 있는 형식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은 분명 새로운 작품 세계로의 확장 의지로 보인다.

“상품의 포장지 역할을 다한 포장 박스는 재생공장으로 또는 쓰레기더미에 묻혀 사라진다.

노인의 주름과도 같은 골판지 박스에 연민의 손길을 내밀어 보았다. 사라지는 것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있음’ / DASEIN / 은 사라짐으로 남겨진다.”라고 김영세 작가는 그 동기를 밝힌다.

동일한 작품명으로 19점을 출품하고 있는데 모두 골판지에 아크릴(acrylic on corrugated cardboard)을 재료로 사용했으며 작품의 규모도 한결같이 95x86cm의 크기로서 2022년에 제작했다.

김영세 작가는 대구 출신이면서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거쳐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미술대학에서 석사를 했다. 지금까지 모두 18회의 개인전을 했고 국내외 수많은 단체전에 참가해온 경력이 있다. - 2022.12 김영동 미술평론가